

# 전남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준공... 산림소재 개발

### 200억 투입 산림비즈니스센터·종자양묘기술센터·온실 등 구축 토종 산림자원 활용해 원료물질 대량 공급·제품 개발 등 '기대'

전남산림연구원이 모두 200억원을 투입해 산림비즈니스센터, 종자양묘기술센터, 스마트온실, 원료물질 생산단지 등을 구축했다. 산림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준공을 통해 산림을 자원화하기 위해 미래 100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산림연구원은 9일 "지난 8일 김영록 전남지사,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 윤병태 나주시장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림 바이오 거점사업은 2019년 11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와 행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5년만에 모두 완공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 및 기념사·축사, 바이오기업과 업무협약식, 테이프커팅과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산림연구원은 이날 국내 바이오기업인 ㈜내츄럴엔도텍·엔피케이(주)·에코씨드(주)·에이옴·데이앤 바이오 등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역 토종 산림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식의약 헬스케어 제품 개발을 위한 협약으로, 연구원은 앞으로 이들 기업에 원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바이오산업이 급격한 성장 추세에 있으나, 국내 바이오산업의 기반인 원료물질의 원활한 대량 공급 플랫폼이 구축되지 못해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국내 산림자원으로의 대체와 대량 공급 기반 구축이 시급한 가운데 난대수종 등 산림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국내 자생식물의 연구개발과 대량 증식 기반을 구축해 '전남산' 산림 소재의 다양한 제품 개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은 온난대 기후대에 자리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보물창고"라며 "전남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가공식품과 헬스케어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8일 전라남도 산림연구원에서 열린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의견 수렴

### 광주시·행안부, 토론회...광역시·도 통합, 행정기구 효율화 등

행정안전부가 행정 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을 찾아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광주·전남·전북 지자체와 지역 연구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 행정 체제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인구 감소·지방 소멸, 행정 구역·생활권 불일치 등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

적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정부 차원의 행정 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하고 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했다.

미래위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 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등이 담겼다.

행안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담팀(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 체제 개편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 광주시, 세계대회 홍보 '찾아가는 양궁체험'

### 다음달 18일까지 초교 14곳 방문

광주시가 내년 9월 예정된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양궁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18일까지 지역 초등학교 14곳을 방문해 약 650여명의 학생들과 양궁 체험을 할 예정이다.

체험에는 광주시, 광주은행, 광주여대, 남구청 양궁팀 등 지역 실업팀 선수단이 참여한다. 선수들은 학생들이 양궁의 기본 원리와 규칙부터 양궁

교구를 활용한 활쏘기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지난 8일에는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송우초에서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산 선수(광주은행 텐텐 양궁단)가 45명의 학생들에게 양궁 활쏘기 체험을 선보였다.

안 선수는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알리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궁 체험 행사는 다음달 18일까지 동구 2·서구 2·남구 2·북구 6·광산구 2곳 등 총 14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혜나 기자 khn@

## 전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4573억 '전국 최다'

###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면적직불금 ha당 100만~250만원

전남도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4573억 원으로 확정, 자격요건이 검증된 21만 농업인(법인)에게 순차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21만명의 농업인(법인)에 4573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

금은 8만8000호에 1152억 원, 농업인(법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2만9000명에 342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지급액(2조3084억원)의 19.8%로 가장 많은 규모다.

전남도는 올해 4월부터 6월 초까지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특히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지 않고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받도록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직불100 캠페인'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잦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과 농업·농촌 유지에 힘쓴 농업인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난해엔 12월 중순에 지급했는데, 올해는 빨리 지급하게 돼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에도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한일해협연안 관광 상품 홍보

### 한일 양국 8개 시도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유럽시장 '노크'

전남도가 지난 7일까지 3일간 한일해협연안 관광상품 개발 및 유럽 관광 시장 확대를 위해 2024 영국 국제관광박람회에 한일 양국 8개 시도현이 공동 참가했다. 세계 3대 국제 관광박람회 중 하나인 영국 국제관광박람회는 관광 분야 전문 비즈니스 박람회로, 매년 전 세계 180여 개국 약 6만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지난 7월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한일해협연안 시도관광협의회 본회의에서 양국 관광자원 개발 및 상호교류 촉진을 위해

2024년 한일 공동 관광사업으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남은 롯데JTB여행사 등 110여 개 회사와 상담을 통해 내년 초를 목표로 8개 시도현을 겨냥하는 여행 상품을 발굴할 예정이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관광박람회,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관광박람회로 한일이 공동 참여해 뜻깊다"며 "한일 공동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5년부터 시작된 한일해협연안 시도관광협의회는 전남도·경남도·부산시·제주특별자치도 등 한국 4개 시도와 야마구치현·후쿠오카현·사카이현·니가타현 등 일본 4개 현의 관광 주관 과장 8명으로 구성됐다. 한일해협 관광활성화 및 양 지역의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부터 2년간 전남도와 야마구치현이 간사를 맡아 세계관광문화대전의 주요 테마인 둘레길 개발을 한일 공동사업으로 채택, 지난 10월 한일 양국 8개 시도현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 남도에서 둘레길 걷기 대회, 팸투어를 개최하는 등 한일 공동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